

+ 이장섭 · 방송과 기술 기자

# 뮤지컬 '선덕여왕', 또 한 번의 돌풍을 몰아치다

지난해 크게 흥행한 MBC TV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로 만들어져 1월 5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국내 방송사 최초로 뮤지컬을 제작하는 MBC는 드라마 초기부터 뮤지컬을 기획하고, 해외 수출까지 염두에 두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최첨단 LED로 만든 침성대와 유명 디자이너 이상봉의 의상, 화려한 신라 황실 내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뮤지컬 '선덕여왕' 갈라쇼에서 출연 배우 (왼쪽부터) 강태을, 김아선, 차지연, 이소정, 유나영, 이상현, 성기윤이 열창을 하고 있다.

주인공 선덕여왕 역은 브로드웨이에서 활동 중인 배우 이소정이 낙점됐다. 이씨는 세계적인 뮤지컬 제작자 캐머런 매킨토시에게 발탁돼 브로드웨이에서 '미스 사이공'의 주인공 김 역을 10년간 맡아 온 재원이다. 그리고, 드라마 '선덕여왕'의 OST인 '달을 가리운 해'를 직접 부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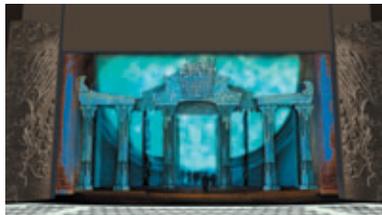
드라마에서 배우 고현정이 맡아 깊은 인상을 남긴 미실 역은 뮤지컬 '드림걸즈'에서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낸 차지연이 선발됐다. 차지연은 일본 대형 극단 '시키' 출신으로 국내에선 뮤지컬 '라이언 킹'의 주술사 원송이 라피키 역으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남자 배역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김유신 역은 성악과 출신의 이상현이, 비담 역은 강태을이 캐스팅되어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흔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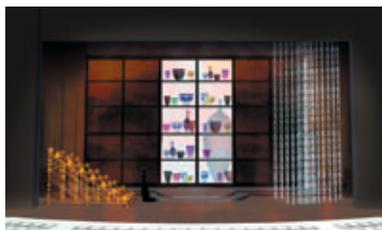
## 공연특징

음악과 춤 : Cross over의 진수를 보여 준다. 클래식음악 작곡기법 기본으로 신명나는 한국 전통음악과 궁중음악, 락발라드와 신나는 힙합음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형태의 뮤지컬 뮤직넘버를 창조한다.

무대미술 : 전통과 현대가 만난 창작 뮤지컬 역사상 가장 화려한 무대미술 뮤지컬 '선덕여왕'은 그 동안 창작 뮤지컬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화려함, 정교함, 성실성 세 박자를 갖춘 상상 속의 황실을 무대 위에 재현한다.



[신라황실궁]



[미살의 방]

의상 : Neo-Classicism(신-고전주의)에 의해 재창조된 퓨전 스타일의 의상. 황실 전통의상과 신라시대 일상에서 입는 의상에도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디자인이 가미된 새로운 스타일의 퓨전 한복드레스 패션을 선덕여왕에서 제시한다.



[선덕여왕]

[천명]

[미살]

[김유신]

무대 위에 펼쳐지는 한류 종합 콘텐츠 :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의미 깊은 한국 전통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제작방향

선(선덕)과 악(미살)의 대결 : 삼국통일의 정신적 기반이 된 화랑의 창건, 화랑의 원화(총수)로 절대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살. 진흥왕에서 시작된 선과 악의 대결구도에서 선덕은 자아를 발견하고 선의 편에서 과업을 완성한다.

뮤지컬 '선덕여왕'은 희극

- 위기상황도 재미있어 하며 상황의 심각성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선덕 (제왕의 덕목)
- 불굴의 의지로 꿈을 이루는 성공이야기
- 셰익스피어 '햄릿'을 차용한 뮤지컬 '라이언 킹'이나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는 비극적인 원작을 희극으로 전환
- 사극의 무거움, 역사의 진지함을 '재미있는 뮤지컬'로 제작

시대와 역사를 초월한 사랑

자신의 성취, 꿈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선덕과 죽을 때까지 선덕을 지지하고 사랑하여 완전한 결합을 이룬 김유신과의 숭고한 사랑이야기